제41회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위원 제 3분과(대장성 소관) 회의록(속기) 제3회
1919년 2월 4일 오전 11시 50분 개의
출석위원은 다음과 같다.
나카무라 게이지로(中村啓次郎)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마쓰다 쥬지(町田忠治)
가토 마사노스케(加藤政之助)
고야마 고타로(小山鄕太郎)
히라타 겐타로(平田健太郎)
兼務　마쓰나가 야스자에몬(松永安左衛門)

출석정부위원은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　스즈키 시즈카(鈴木穆)
조선총독부 참사관　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郎)
조선총독부 사무관　고우치야마 락쿠조(河內山樂三)
대만총독부 민정장관 시모무라 히로시(下村宏)
대만총독부 재무국장 스에마쓰 가이이치로(末松階一郎)
대만총독부 사무관 기쿠치 다케요시(菊池武芳)
관동도독부 민정장관 미야오 슌지(宮尾舜治)
관동도독부 사무관 나가야마 젠스케(永山善之助)
華太廳장관 昌谷彰
華太廳 사무관 西岡實太
대장성 주세국장 마쓰모토 시게다케(松本重威)
대장성 주계국장 오노 기이치(小野儀一)
대장성 이재국장 모리 슌로쿠로(森俊六郎)
대장서기관 사사키 겐이치로(佐々木謙一郎)
대장서기관 가쓰 마사노리(勝正憲)
전매국장관 노나카 기요시(野中淸)
대장서기관 가와타 이사오(河田烈)

오늘 회의에 오른 의안은 다음과 같다.
1919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대장성소관)
1919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총예산안(대장성소관)
예산외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을 필요로 하는 건(대장성소관)
(제1호) 1919년도 세입세출총예산추가안(대장성소관)

(전략)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조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보조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선의 교육에 대한 보조금의 실제는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지금 스즈키(鈴木)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보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본의 소학교 및 학교조합 등에서 경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보조, 조선인의 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립보통학교 그 외 보조로 2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25교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의 증가에 동반한 것인데 각지의 학교조합이 새롭게 생겨, 그 증설된 수의 평균이 먼저 25교입니다. 교원의 봉급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한 학교에서 6백 원 기구, 기계 등 교구의 설비비로 250 원, 매년 신설에 대해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간도에 용정촌이 있는데 간도 방면의 조선인 교육에 대해서도 보통학교를 상당히 증설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소학교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조선에 있는 일본인 자제의 교육 발달에 유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전임의 훈도, 혹은 촉탁교원 각 1명을 배치해서 요컨대 경비 1700여 원을 보조하고 부근의 아동을 위해 숙사 또는 교장의 관사 건축에 약 2천 원 정도의 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등여학교 등의 보조입니다. 이것은 종래 1교에 평균 2800 원 남짓 또 실과고등여학교에는 천 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점차 취학자의 증가에 동반하여 설비비 등에 많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의 보조로는 불충분해서 1919년도부터는 교원의 봉금 금액의 반액을 정부가 보조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액이 6만여 원이 되는데 그 반액인 3만 5백 원 보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과고등여학교에 대해서는 종래처럼 1천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선인 교육을 위한 보통학교입니다. 종래 460 교에 대해서 약 8만 7,8천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취학 아동의 대략적인 숫자는 132만이고 불과 100분의 6 정도밖에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보통교육을 보급시키기 위해 정부로서는 상당한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지금 6면 1교 - 즉 6개의 촌에 1교의 비율을 개선하여 3면에 1교 정도의 비율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1919년에는 앞으로 8년간 즉 1919년부터 1926년까지 8개년에 50교씩 늘려 400교를 증설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 3면에 1교가 되어 먼저 현재의 조선의 민도로서는 충분하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보통교육의 보급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보통학교비용령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에 의해 조세의 백분의 2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학교 보급에 다소 지방민 자신의 부담을 조금 늘려가서 보급을 도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지방비의 세금에 증가 부과해서 이것에 의해서 위의 목적을 달성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도 방면의 조선인을 위한 학교입니다. 1919년도에 대납자(大拉子)에 1교를 증설하는데 종래 25개의 서당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 정부의 경비로 경비를 4천 원, 건설비를 8700 원을 보조해서 세웠습니다. 이 외 공립상업학교라든지 사립의 상공학교와 같은 실업교육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도 학교의 상황에 따라 각각 보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작년 교육을 질문했습니다. 그 답변과 비교하면 올해는 소학교의 확장은 1926년까지 예정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매우 좋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조선인의 취학률은 백분의 몇까지 올라갑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이 계획이 완성되면 전체 15만 명이 됩니다. 약 12%에 해당됩니다. 도저히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방 경제의 발달, 재정 상황에 의해 상당한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염전조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총독부 계획은 조선만의 수요는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염전조사비는 모국에 송금을 보낼 수 있습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조선 소금의 소비액은 약 3억만 근입니다만 그 가운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천일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이 먼저 작년에 약 8천만 근이고 올해에는 9천만 근이상이 됩니다. 그 외에 수입하고 있는 소금이 2억 2천여만 근입니다. 점차 염전을 확장해서 소위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조선의 경제에도 적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소비도 불안하기 때문에 점차 염전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조선의 제염업의 실제 성적은 관동주 소금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집니까? 지금까지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전의 생산력은 조선의 실제에 비추어보면 1정보당 약 8만5천 근, 이것은 1917년입니다. 새로운 염전도 다소 섞여 있습니다. 염전을 축조한지 아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이 낮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는 먼저 9만근 이상 거둘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관동주는 6만8천 근입니다. 청도(青島) 언저리가 6만6천 근, 대만이 평균해서 12만 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염전이 점차 해를 더해서 熟田이 되어감에 따라 생산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대체로 10만 근을 계획 근수로 보고 있습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생산액은 알겠습니다만, 생산비는 백근 당 얼마나 됩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1917년의 실험에 비추어보면 조선은 생산실비로 20전 7리입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甘菜糖의 보조도 계상되어 있는데 감채당의 재배는 조선에서 아주 우수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생기고 사업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으로서는 아직 대체적으로 진척되지 않습니다. 감채당 사업이 지체되고 진척되지 않는 주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감채당 종자 수입이 곤란하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제조 기계 수입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작년은

겨우 종자를 얻어 70여 정보에 심었습니다. 그것을 채집했고 올해는 많이 확장할 계획입니다. 보일러의 수입에 지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행히 최근 영국에서 수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올해 안에는 상당한 설비가 완성되리라 봅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감채당에 대한 보조는 어느 정도의 비율입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당 원가의 반액을 인민에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그 정도만입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그렇습니다.

◯ 주사(나카무라 게이지로, 中村啓次郎)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합니다.
오전 4시 2분 산회

제 41회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 3분과(대장성 소관) 회의록(속기) 제4회
1919년 2월 5일 오전 10시 49분 개의
출석위원은 다음과 같다.
나카무라 게이지로(中村啓次郎)
고야마 고타로(小山鄕太郎)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가토 마사노스케(加藤政之助)
야마모토 데이치로(山本悌一郎)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兼務
사사키 세이조(佐々木正藏)
유아사 본페이(湯淺凡平)
야마구치 쓰네타로(山口恒太郎)
쓰치야 기요사부로(土屋淸三郎)

출석정부위원은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 스즈키 시즈카(鈴木穆)
조선총독부 참사관 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郎)
조선총독부 사무관 고우치야마 락쿠조(河內山樂三)
대만총독부 민정장관 시모무라 히로시(下村宏)
대만총독부 재무국장 스에마쓰 가이이치로(末松階一郎)
대만총독부 사무관 기쿠치 다케요시(菊池武芳)
관동도독부 민정장관 미야오 슌지(宮尾舜治)
관동도독부 사무관 나가야마 젠스케(永山善之助)
華太廳장관 昌谷彰 華太廳 사무관 西岡實太
대장성 주세국장 마쓰모토 시게다케(松本重威)
대장성 주계국장 오노 기이치(小野儀一)
대장성 이재국장 모리 슌로쿠로(森俊六郎)
대장서기관 사사키 겐이치로(佐々木謙一郎)
대장서기관 가쓰 마사노리(勝正憲)
전매국장관 노나카 기요시(野中淸)
대장서기관 가와타 이사오(河田烈)
농상무차관 이노쓰카 가쓰타로(犬塚勝太郎)

주사의 허가를 얻어 출선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사이토 게이지(齋藤珪次)

오늘 회의에 오른 의안은 다음과 같다.
1919년도 세입세출총예산안(대장성소관)
1919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총예산안(대장성소관)

예산외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을 필요로 하는 건(대장성소관)
(제1호) 1919년도 세입세출총예산추가안(대장성소관)

(전략)
오후 1시 29분 개회

◯ 주사(나카무라 게이지로, 中村啓次郎) 개회합니다.

(전략)

◯ 유아사 본페이(湯淺凡平[1]) 의원 이번에 보조금을 주기로 한 조선 방직주식회사의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 중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생산하는 면화를 이 회사가 방직하고 있는데, 대략 몇 개월간의 원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의해 일본의 방직회사는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전후 경제상의 타격에 의해 약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때에 특히 조선방직회사에 보조금까지 주어서 이를 원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질문합니다. 공장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미리 성립을 신고할 때에 각 지방에 경쟁이 일어나 목포, 부산, 경성과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한 운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묻습니다.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조선 방직회사의 중역의 인명은 모두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코시 교헤이(馬越恭平), 야마모토 죠타로(山本條太郎) 그리고 사쿠라이 군노스케(柵瀨軍之佐) 2,3인 있습니다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2 공장 위치는 비교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목포 경우에 따라서는 경성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회사에서 확장했다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은 부지매수 그 밖의 관계에서 다소 일부러 말끝을 흐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장소로는 결국 남천(南川)방면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3의 방직회사가 사용하는 면화의 분량과 조선에서 생산한 면화의 분량과의 비교를 질문하셨는데 조선의 면화는 일정 계획을 가지고 총독부에서 확장하고 있어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부터 제2기 면화를 확장하면 실면(實綿)에서 2억4천만 근이 10년째에 생산됩니다. 즉 조면해서 8천만 근 정도 생산됩니다. 1917년의 면화수확량은 육지면화에서 5천5백만 근, 재래 면화에서 1500만 근, 약 7000만 근입니다. 방직회사가 사용하는 면화의 분량은 340만근의 면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공급하는 것 외에 충분한 수출력을 가지고 있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보조할 때까지 성립을 재촉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라고 질문하셨는데, 대체로 총독부의 방침으로 일반적으로 산업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방직사업은 조선에서 면사 및

---

1) 유아사 본페이(1867-1943) 히로시마 현 출신, 1891년 게이오기츄쿠 졸업, 명치대학 법과에서 배움. 日本郵船사원이 되고 나중에 조선 경상남도 밀양에서 농사를 경영. 밀양은행업무집행사원, 上南水利組合長, 요코하마 시회의원, 당선 5회. 신정구락부.

면포 수요를 고려해도 아주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면사 수입액은 돈으로 환산해서 약 500만 원, 면포가 2200만 원, 합계 2700만 원, 면포, 면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가지는 가능한 한 조선 안에 면직 사업을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하면 조선 일반의 수요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의복 재료를 항상 수입, 혹은 이입하고 있는데 경제상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면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총독부는 육지면을 장려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차 그 생산액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면포, 면사의 수요가 매년 매우 증진하고 일면에서는 필요한 재료는 조선에서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면방사업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면방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공의 숙련, 즉 공임(工賃)에 관계하는데 조선에서 노동력을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과연 사업으로서 충분히 수지가 맞을 지는 지금 매우 의문에 속합니다. 다행이 다른 연초 사업 등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방직사업에 대해서도 수년 후에는 직공의 숙련에 의해 사업 경영이 잘 되리라 생각하는데 처음에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직회사는 이러한 점에서 보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보조합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 유아사 본페이(湯淺凡平) 의원 한 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다음은 조선의 수리사업입니다만, 물론 이 일은 중대한 문제로 우리나라 식량의 항구적 공급 수단으로서 조선에 그 지보(地步)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급무는 수리(水利)입니다. 원래 총독부에서도 다년 이 일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요구하신 예산을 보면 지금 질문합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방직사업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산업의 발달을 위해 그러한 때에도 상당한 조성금을 줄 경우에 식량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문제인 치수사업에 대해서 조사비용으로서 요구하고 계신 금액은 불과 4만 몇 천 원으로 아주 근소한 금액인데 과연 이 치수사업에 관한 조사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대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보다 우선해서 총독부에서 조선의 치수계획은 대대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계획은 있습니까? 또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실행하실 것입니까?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답변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질문하신 식량 공급에 대해서 특히 조선에서는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의 장려에 대해서는 극력 힘쓰고 있고 작년 234만 석을 수출할 수 있게 된 것도 일정부분 그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 관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리조합을 장려해서 가능한 한 저리의 자금을 융통하는데 힘쓰고 있는데 조선 재래의 제보라고 하는 작은 수리 방법에 의하고 수리를 입고 있는 논밭이 약 20만 정보, 24만 정보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매년 보조해서 가능한 한 이것들의 수축, 개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치수의 조사에 대해서도 수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3,4년

전부터 수리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먼저 조사를 완결했습니다. 수리의 제1기 계획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전국 약 35,6개소의 주요한 수리지점을 조사해서 수리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면적이 10만6천 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먼저 2천만 원, 이것은 작년 초에 견적한 것으로 지금이 되면 이 이상 다소 늘어나리라 생각되는데 먼저 2천5백만 원 듭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행하는 것이 지금의 급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채를 발행해서 관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혹은 그 밖의 논의도 있는데 이 35, 6 개소는 주로 저수지 등의 조직에 의한 것이 많고 10만6천 정보의 수리사업의 혜택을 받는 구역을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히려 적당히 보조해서 민간 자본으로 해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올해 먼저 수리조합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대체의 취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 수리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조사하는 이외의 수리지점을 민간에서 계획하는 것은 지금 대대적으로 장려해야하기 때문에 장려계획에는 반드시 이 지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방법은 대체로 정부에서 설계, 조사를 정부의 비용으로 하고 있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수리자금의 15%까지 보조하도록 100만원 든 것은 15만 원 정도 정부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 설계하는 곳이 모두 곳에 도저히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4만 원 정도 그 구역 200정보 이상은 정부에서 보조합니다. 이것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 등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자본의 회사, 특히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회사가 하는 일은 정부에서 보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의 사람의 신청에 의해 정부에서 조사,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백 정보 미만을 넘는 것이라든가 4만원 미만은 지방에서 가능한 한 보조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특히 9만 원 정도의 돈을 지방비로 이를 위해 넘겼습니다. 지방비는 그 재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같은 대자본인 회사, 그 밖의 자본력이 충분이 있는 회사도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를 제외하면 약 3만6천 정보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조사, 설계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4천 정보 씩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올해는 별도로 그것을 위해 인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리조사인데, 치수에 관계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로서 신중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이것이 여기 4만 원 계상해서 조사하고자 합니다.

◯ 유아사 본페이(湯淺凡平) 의원 치수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조선의 하천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철도가 입은 피해만으로도 수백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밖의 사람, 짐승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적지 않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가급적 신속히 실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1개조 대체로 내년도부터는 이입세, 수입세가 철폐되는 결과 이에 대신하는 세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선에서의 소금, 술, 담배, 이 세 가지 세금의 전매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약 계획하신다면 언제부터 실시하십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세 가지 세금의 정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인 성안은 없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조선, 일본 사이의 세금만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의 세입에는 약 600만 원 부족하게 됩니다. 때문에 1920년도 이후에서는 적당한 세입의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보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지금 말하신 담배 및 소금의 전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할 지는 아직 정부에서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의 전매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략)